# 성령 충만한 교회의 표지

사도행전 2:41-47

Clément Tendo, 목회 인턴

2023년 7월 30일 설교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있는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2주간의 집중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쁩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그 점에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크리스 목사님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전한 결과 3000명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절은 오순절이 교회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가 성령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흔적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47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1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있었고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45 그들은 소유와 소유를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우리는 함께 이사야 40:8을 읽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십시오.

굳고 돌이 많은 땅을 부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당신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듣고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귀를 여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 주소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여기 있는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여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의 영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시대의 교회로서 우리는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네 가지 특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표시"라고 말할 때 나는 특징 또는 독특한 품질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을 봅니다.

(1)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

(2) 우호적인 교회;

(3)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4) 다가가는 교회.

이 네 개의 표시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처음 세 표시는 교회의 내적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표시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세 표시는 42절에 요약되어 있고 43절부터 46절까지 설명되어 있으며 마지막 표시는 47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 요점 1: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

첫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Dr. Luke는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는 42절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3000명과 함께 성령을 받은 120명입니다.

누가는 이 새로 태어난 교회가 오순절 경험을 회상하거나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배우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오순절이 중요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영적 삶의 기초가 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에 전심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사도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초기 교회의 성경인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파했음을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랫동안 예언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무고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지금은 주와 그리스도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군중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에 3000명의 회심으로 이어진 메시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신자들은 신자로서의 교제에서 그리스도를 반영하려면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 필요가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연합의 기둥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왔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사도들이 가르친 모든 것이 신약성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공부에 몰두하다 보면 사도들도 구약성경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은 구약이 설명되고 완전히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시대의 교회로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교제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 이것은 포인트 2: 우정의 교회로 이어집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친교하는 교회임을 봅니다.
42절은 말합니다.
42절에서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나눔'과 '참여'를 포함하여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으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나눕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은 신자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 1:3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노니...
참으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교제 개념을 선택하여 성령에 적용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교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적 경험, 그것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의 공통된 몫입니다."
둘째, 신자로서 우리는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교제와 관용이 동일한 그리스어 어근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친교로 번역된 단어는 "Koinōnia"인 반면 관대하게 번역된 단어는 "Koinonikos"입니다.
교제에 대한 신자들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한 후, 누가는 그것과 관련된 관대함을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2:44-45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44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통용했습니다.
45 재산과 소유를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니라

대부분의 언어에는 공생을 강조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L'union fait la force"라고 말하는데 문자 그대로 "통합이 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초기 단계의 신자들은 강해지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양성 가운데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구속하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가졌다"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기 전에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물을 공유하는 것에 관한 이 구절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또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정치 체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공산주의는 누구도 소유할 권리가 없다는 전제 하에 재화를 강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사유 재산을 허용하지만 개인이 소유한 것의 상당 부분을 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사람들이 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두 시스템은 관대함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어떤 인간 체계에 의해서도 강요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관대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흘러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 교회는 사람들에게 먼저 모든 소유물을 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장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선물을 아낌없이 주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그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도록 이끌었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헌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자기 소유를 팔아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들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공동체에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행하신 일은 우리의 헌금에도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의 모든 것"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아낌없이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아낌없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이는 John Stott가 다음과 같이 유용하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제는 기독교인의 돌봄이고, 기독교인의 돌봄은 기독교인의 나눔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한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주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헌금은 우리가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소유물을 주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돈, 시간, 힘, 지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 가운데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면 인색합니까?
주는 것이 예배의 일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관대하게 줄 때 우리는 관대하게 베푸시는 분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것은 나를 포인트 3: 예배하는 교회로 인도합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42절에서 신자들이 다음과 같이 있음을 봅니다.
42 "전심하여...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신약성경에서 "떡을 떼는 것"은 주의 만찬과 신자들이 예배를 위해 모였을 때 먹는 일반 식사를 모두 가리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빵을 떼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신자들이 떡을 떼기 위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있음을 봅니다.
식사와 주의 만찬을 함께 하는 것은 예배자들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 보이스에서 저녁 식사와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46-47a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a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매일"은 "매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기 위해 자주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또 다른 것은 그들이 성전과 가정에서 모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가 일요일 행사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들 신자들에게 예배는 교회와 가정에서 모두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은 말합니다.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또한 교회와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기쁨과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우리는 성령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사람이 두려워하였다고 읽습니다.
사도행전 2:47a의 마지막 구절은 "…
이것은 예배공동체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백성"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포함합니다.
예루살렘의 비기독교인들은 초기 교회를 싫어했을지 모르지만 마음 속으로는 성령 충만한 이 교회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친구: 우리는 예배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다정함을 전합니다.

## 이것은 나를 요점 4: 다가가는 교회로 이끕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방식의 열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신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효과는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까지 퍼집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항상 설교하고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이 인용문의 강조점은 신자들의 행동에 있습니다.
이 인용문은 우리의 행위 자체가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꺼내?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전도 없이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사도행전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또한 선교적인 교회였음을 봅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초기 교회 신자들은 행실과 말에 있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한 인용문은 "말과 행동으로 전파하라"여야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배하는 사람의 수를 더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상 주님께 영예를 돌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성장이 당신의 일의 결과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동과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배자들을 모으기 위해 사용하실 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 결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은 우리가 One Voice에서 교회와 개별 신자로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성경 공부하는 교회입니까?

### 우리는 교제하는 교회입니까?

###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입니까?

###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입니까?

친구 여러분, 저와 같다면 이 본문은 우리 삶의 약점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연결된 요소로 표시되기 위해 당신과 나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첫째,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파한 구원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도행전 4:12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람들이 이를 믿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구원의 좋은 소식이 절실히 필요한 구원받지 못한 친척,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을 위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고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보혜사요 위로자이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16-18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분은 당신과 함께 거하시고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18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로 갈게."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권위와 지도력에 굴복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동안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 친교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다가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당신의 영을 의지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실패했음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성령께 굴복하지 않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하며 서로 예배할 때 성령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One Voice Fellowship